

광주지역 데이트 폭력 위험 수위

지난해 500여건 발생 등 해마다 증가 헤어지고 난뒤 보복성 폭력도 늘어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이 지난 2월 마지막 한주동안 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 지난해 500여건에 달할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 사귀는 기간은 물론 헤어진 이후 보복성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처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현황은 2015년

242건, 2016년 254건, 2017년 497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한 달에만 19건이 발생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범위 유형을 보면 500여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폭행 330건(359명), 상해 38건(40명), 협박 35건(35명), 주거침입 퇴거불응 29건(29명), 체포 감금 협박 12건(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은 7명, 불구속은 450명이었으며, 훈방

69명, 상당반려 2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들이 보복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데이트 폭력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트 폭력은 범용흔과 사실혼 외의 사귀는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 사건으로 주로 사귀는 기간에 벌어지기도 하지만 최근들어 헤어진 이후 보복성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최 모씨(64)는 지난달 28일 전 여자친구 B씨(45·여)를 쇠파이프로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5분께 서구

화정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헤어지자고 통보한 B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머리와 팔 등에 쇠파이프를 가격한 후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최 모씨(24)는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서구 풍암동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인 배 모씨(28·여)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 모씨(48)도 같은날 밤 11시 30분께 서구 화정동 한 모텔에서 연인 사이인 김 모씨(52)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잔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데이트 폭력 수사전담팀과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전담팀을 꾸리는 등 데이트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데이트 폭력 수사전담팀을 운영 중이고,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청문 전담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한 피해 여성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위한 상담전담팀도 운영하는 등 지인이나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 /김중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0~11	흑산도	6~7
담양	10~11	구례	10~10
화순	10~11	곡성	10~11
영광	7~9	완도	10~11
함평	10~11	강진	11~11
무안	9~10	장흥	11~11
영암	10~10	해남	8~10
진도	9~10	고흥	10~9
신안	7~9	보성	9~8

일출 06:57 일몰 18:31
월출 21:57 월몰 09:00

목포	만조 04:24 16:46	여수	만조 11:23 23:44
	간조 09:32 21:53		간조 05:05 17:20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민주당 당원 명부유출 경찰, 본격 수사 착수

민주당 광주시당 압수수색 나서

이용선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측의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의혹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사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당원명부를 보관 중이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PC의 증거 훼손·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법의학)으로 복원해 당원명부가 유출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삭제 파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을 남기게 되고 대부분은 복구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선택한 기법이다.

이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와 유출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해당 컴퓨터 자료가 변형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경찰은 당원명부 유출의혹

을 수사하기 위해 당사 컴퓨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지난달 초 신규 당원들에게 신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람이 이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원명부 유출경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당원명부 유출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민주당 측에 PC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차례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유출경로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민주당사의 PC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근 세 번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지난 2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다음날인 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명부의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간 풀리지 않았던 실마리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신암마을 당산제
광주시 서구 풍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암동 신암마을 당산어린이공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산제를 올리고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했다.

“광주 여성, 혁명가의 길 보여줬다” 팔레스타인 여성평화운동가 초청 강연

팔레스타인 출신 여성평화운동가들이 “광주 여성은 우리에게 혁명가가 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4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전남 광주를 찾은 바나야부 주루프(24), 캐리아 아이야드(24) 등 두 여성평화운동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 행렬을 이어간 광주 여성이 팔레스타인 여성에게

보여준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두 여성운동가는 “팔레스타인 청년들과 광주 청년들의 목소리가 연결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단합된 평화가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모아야 한다”고 극찬을 이었다.

광주 여성과 시민이 보여준 5·18 대동 정신이 팔레스타인에서도 한 여성평화운동가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루프 등은 “마주 마샤라우이라는 동지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일이라고 관심 보이지 않았지만, 나뭇재와 석탄으로 ‘케이리’라는 벽돌을 만들었다”며 “이 가벼운 벽돌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쑥대밭이 된 땅에 새 집을 짓는다”고 눈시를 적었다.

한국 여성과 팔레스타인 여성의 공통점으로는 역사적 배경 탓에 겪었던 아픔을 꼽았다. 이들의 가족들도 팔레스타인에서 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공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오월민주여성회 초청으로 강연했다. /김용현 기자

메마른 대지 적시는 ‘봄비’ 오늘 오후까지 20~60mm

광주·전남은 5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려 겨울철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20mm~60mm의 비가 내리겠다. 또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의 차이가 2~3도 내외일 것으로 예상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흑산도 6도, 영광·목포·신안 7도, 광양·해남·여수 8도 등 6도에서 11도 사이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흑산도·광양·여수 7도, 보성 8도, 영광·목포·신안·순천·고흥 9도 등 7도에서 12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로 인한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중찬 기자

근로호 수색 5일째...추가 발견 못 해

지난달 28일 완도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근로호(7.93t)의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5일째 오리무중이다.

4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해경 함정 27척, 해군 함정 1척, 관공선 9척, 민간선 199척 등을 동원해 사고 주변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2명의 시신이 수습된 이후 현재까지 5명의 추가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근로호는 지난 3일 크레인 바지선에 실려 완도해경 전용부두에 접안을 마치고 선체 정밀수색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이 나선다.

Panasonic 메모리 카드 카메라 레코더

업계 최대 광각 24mm, 20배 광학 줌 및 1.0타입³ MOS 센서가 특징인 4K 60p/50p¹캠코더

AG-UX90
AG-UX180
AG-DVX200

최신 기능과 구성

4K PROFESSIONAL
UX SERIES

고화질과 기능성을 겸비한 4K 영상 제작의 새로운 기준

파나소닉 HD프라자 062) 382-6666
HD코리아(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24번지 (임동오거리)

http://www.party-food.co.kr

“음식출장 행사 25년 전통”
파티외식산업

실순잔치, 팔순잔치, 아외결혼식, 성당교회 결혼식 전문업체 / 시내, 시외 출장 뷔페 전문

음식물 고객 배상 화재보험 10억원 가입업체
단체도시락 제조 납품, 단체식사 병원 / 기업체 / 학교 구내식당 - 위락운영, 위락급식
※ 식탁, 의자, 회갑 - 칠순 상차림, 케익, 프랑카드 서비스 함. ※ 행사장비 지원 (밴드, 사진, 비디오, 각설이 출장 가능함)

전문 파티 플래너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무료상담전화 080-226-0085 / 010-4601-3222

※ 소량이라도 약속한 시간전까지 배달납품 합니다.